

# 생명존엄의 연대가 빛나는 세기를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12년 1월 26일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며 고난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전진하자!**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평화로운 지구사회로 가는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1983년 1월에 '국제참가학회(SGI)의 날'을 기념하는 제언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 올해로 30회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SGI는 1975년에 발족한 이래 불법(佛法)에서 설하는 '생명존엄사상'을 기조로 평화와 문화 그리고 교육 운동을 펼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빛내고 평화적으로 살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자

그 커다란 원동력은 제 인생의 스승 도다 조세이 제2대 회장이 외친 "지구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 세계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재해

지금도 세계에는 분쟁이나 내전, 빈곤이나 기아 그리고 환경파괴 등 온갖 위협으로 생명과 존엄이 위험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비롯해, 인권 침해와 차별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덧붙여 많은 사람의 존귀한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고, 생활기반을 파괴하여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지난 10년 정도만 보더라도, 2004년 수마트라 앞바다 대지진으로 발생한 인도양 해일을 시작으로 2010년 중미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희생자를 낸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비롯해 뉴질랜드와 터키의 지진, 타이와 필리핀의 수해,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가뭄 등 세계 각지에서 재해가 이어졌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각지에서 재해를 입은 여러분의 심통한 표정과 참담한 상황을 떠올릴 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재건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 따름입니다.

일찍이 지진과 해일 대책을 강구하도록 경종을 울린 물리학자 데라다 도라히코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재해가 더욱 극심하게 맹위를 떨친다.”고 지적했듯이 재해는 무서운 위력을 지녔습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사고는 그 점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이 나라 안팎의 지역으로 광대하게 퍼지며 오염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부득이하게 오랜 기간에 이르는 피난을 떠나야 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비롯해 농작물이나 식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등 재해에 따른 사고로서는 미증유의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에너지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현대사회와 점점 거대해지는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 갑자기 덮치는 곤궁을 경고한 센 박사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박사는 이렇게 예고도 없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위협에 유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고향 벵골에서 일어난 대기근을 목격한 체험을 원점으로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강한 관심을 지니고, 경제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구한 센 박사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 그리고 존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정책을 지구적 규모로 추진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센 박사가 '인간의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과제로 강조한 점은 '갑자기 덮치는 곤궁(困窮)의 위험'에 대처하는 일입니다.

박사는 "인간의 생존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녀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존엄을 모독하고, 인간을 질병이나 전염병의 불안에 노출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급격한 곤궁으로 내모는 갖가지 원인에 대처하려면 특히 갑자기 덮치는 곤궁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의 삶에서 더없이 소중한 중추부'를 해치는 위험이나 불안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데 사회의 참된 안녕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센 박사가 오가타 사다코 씨와 공동의장을 맡은 '인간의 안전보장위원회'도 보고서에서 "사람들이 위기나 예상하지 못한 재해를 여러 차례 겪으며 쓰러질 듯한 상황에서 (그것이 극도의 빈곤이든, 개인적인 손해나 도산이든, 아니면 사회 전체가 입은 충격이나 재해든) '인간의 안전보장'은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할 방법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주장한 사항이었습니다.

## 어느 나라에서든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위험은 재해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경제위기가 야기하는 생활불안 확대를 비롯해 기후변동에 따른 급격한 환경악화 등 갖가지 형태로 사람들을 덮치는 데다 선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가 세계경제는 새로운 위험지대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듯이 지금 각국에서 경제위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먼쇼크<sup>1</sup> 이래 장기화하는 경제불황에 앞선 데 덮친 격으로 그리스 재정위기가 발단이 된 유럽

---

### <sup>1</sup> 리먼쇼크

2008년 9월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서 비롯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컫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국제적 금융 수축이 일어났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시 마이너스 성

각국의 신용불안 확대를 비롯해, 미국국채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등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경기 후퇴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이미 전 세계에서 실업자 수가 2억 가까이 이르는 등 많은 나라에서 생활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여 다른 연령층의 두 배에서 세 배에 이르는 나라도 있고, 직장을 구해도 비정규직에 급여마저 적은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발표한 제언에서, 본디 없어야 할 '생명의 격차'나 '존엄의 격차'가 생긴 나라를 비롯해 성장 환경 등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지구사회의 모순'을 시정하려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현재 그 과제와 더불어 점점 더 시급해지는 사안은 재해나 경제위기처럼 '갑자기 덮치는 곤궁의 위험'에 대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언에서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 그리고 존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갑자기 덮치는 곤궁의 위험'에 어떻게 맞서면 좋을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재해는 인간의 삶에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것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립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낳아 키워준 아버지와 어머니, 고락을 함께한 남편과 아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손자 그리고 절친한 벗과 지역의 동료 등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존재를 잃는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불법에서 설하는 애별리고(愛別離苦)라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은 어떤 사람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애독한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에 관한 잊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에머슨은 다섯 살 난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잃었을 때,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밤 8시 15분, 내 귀여운 월도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에머슨은 청년 시절부터 늘 일기를 쓰며 정신적 기반을 다졌지만, 이때만큼은 가슴 아픈 현실을 나타내는 짧은 글월만 겨우 썼을 뿐입니다. 며칠 뒤에 에머슨이 다시 펜을 들고 일기장에 그 다음 문장을 쓰기까지 네 쪽에 이르는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아침 해가 눈부시게 떠올라도 월도가 없는 풍경은 빛깔을 잃었다. 자나 깨나 늘 내 머릿속에 자리하던 그 아이. 샛별도 노을 지는 구름도 그 아이가 있었기에 아름다웠다."

---

장을 기록했다.

정신적 괴로움을 쥐어짜내듯 써 내려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실감'과 네 쪽에 이르는 공백에 담긴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 일기에서는 한없이 깊은 비애가 배어 나오는 듯합니다. 불법도 이러한 '생사(生死)'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이 남편을 여의고 불의의 사고로 아들마저 잃은 여성신도에게 "어이해 부모와 자식을 바꾸어서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 두어 슬프게 하는가."(어서 929쪽, 취의)라고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에는 "설령 불 속에 들어가고 머리가 깨진다 해도 자식을 볼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실 당신의 심중이 헤아려져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어서 929쪽, 취의)라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듯 재해가 일어나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가족이나 동료로 잃는 괴로움을 겪으므로, 사회 전체가 오랜 시간을 들여 그 사람들을 지키고 도와야 합니다.

### 쌓아 올린 인생의 시간이 단절되는 슬픔

또 재해는 삶의 터전인 집을 파괴하고 그때까지 누리던 생활이나 지역에서 맺은 유대관계를 빼앗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 역사를 새기고 일상생활의 숨결이 배인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가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특별한 시간이 흐르고 있기에 집이라는 공간을 잃는 일은 쌓아 올린 인생의 시간이 단절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일본대지진으로 일어난 거대한 쓰나미가 몰고 온 피해처럼 지역 일대가 모조리 파괴되는 타격을 입을 경우, 자기 고향에 강하게 애착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웃과 맺은 연대라든지 마음속으로 의지할 만한 곳을 순식간에 빼앗긴 슬픔은 더욱 깊어집니다.

새롭게 살 곳을 찾았다고 해도 환경이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하고, 그때까지 쌓은 인간관계도 대부분 사라집니다.

저는 재해를 입은 여러분의 그러한 고생과 고통을 생각하다 보니 작가 생텍쥐페리가 한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난 동료들 대신할 수 없고, 오랜 벗을 만들지 못한다. 그 무엇도 함께 나눌 수 많은 추억과 함께 겪은 엄청난 시련의 시간 그리고 잦은 갈등과 화해 등 가슴 뛰고 보물처럼 값진 시간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우정은 두 번 다시 얻기 힘들다. 떡갈나무를 심었다고 바로 그 나무 그늘에서 쉴 수는 없다.”

이 글은 절친한 벗과 맺은 존귀한 유대와 그를 잃은 슬픔을 표현한 문장이지만, ‘오래 살아 정든 집’이나 ‘고향’ 그리고 ‘사랑하는 지역’도 이와 같은 무게와 소중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됩니다.

### 한사람 한사람이 ‘삶의 희망’을 되찾고 인생을 재기하도록 사회 전체가 지원해야

#### 삶의 보람을 상실

더욱이 재해는 많은 사람의 일이나 삶의 보람을 빼앗고 ‘존엄한 삶’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현재 시드니평화재단의 스튜어트 리스 이사장과 ‘정의에 근거한 평화’라는 주제로 대담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대담을 나누는 가운데, 실업문제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협이라는 면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리스 이사장은 실업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목적관과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자신의 저서를 인용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노동에서 생기는 가치 있는 심원한 인간적 감각 즉 무엇인가를 달성하는 만족을 느끼거나 사회에 공헌하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인간적 감각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2년 전에 서거한 세계적인 면역학자 다다 도미오 씨는 예순일곱 살 때, 갑자기 병에 걸려 진행하던 많은 일을 단념해야 했습니다.

훗날 그는 그때 받은 충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다. 내 인생도, 삶의 목적도, 기쁨도, 슬픔도 그전과 비교

해 모두 달라지고 말았다.”

“생각하는 동안에 엄청난 상실감이 엄습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에 휩싸였다. 이미 모든 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본디 일은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설령 눈에 띄지 않아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소임을 날마다 견실하게 완수해 얻어지는 긍지나 살아가는 충실감의 원천입니다.

하물며 재해로 집과 재산을 대부분 잃고 가혹한 피난생활을 해야 하는 데다 생업까지 잃는다면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경제적 생명줄이 끊어지고, 아울러 앞으로 나아가는 힘의 원천인 삶의 보람을 잃게 해 재기를 위한 정신적인 발판조차 무너지는 사태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같은 사회에 사는 우리는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희망을 되찾도록, 어쩔 수 없이 사는 곳을 옮기고 생업을 바꾼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처’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의 재기’ ‘인생의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키고 도와야 합니다.

### 토인비 박사의 역사를 바라보는 투철한 안목

사실 이러한 비극은 재해뿐 아니라 다양한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로 많은 사람을 덮칩니다. 그렇다면 비극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막고, 지구 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려면 어떤 전망과 방책이 필요할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손 닿을 만한 곳에서 미래를 비추는 유일한 빛은 과거의 경험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사의 초청으로 런던에 있는 자택을 방문해 인류의 미래를 전망하며 대화를 나눈 지도 올해로 40년이 됩니다.

박사는 대화나 저서에서 ‘역사의 교훈’이라는 말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박사의 역사관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명의 철학적 동시성(同時性)’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그렇게 고찰하기 시작한 계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전 5세기에

일어난 펠로폰네소스전쟁<sup>2</sup>에 관해 당시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책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다 문득 뇌리를 스친 감각이었다고 합니다.

박사는 그 일을 이렇게 술회했습니다.

“문득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투키디데스가 고대 그리스의 내란 초기를 기록한 역사와 똑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살던 시대와 현대가 2,300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쓴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되풀이되려는 듯했다.”

박사는 역사를 바라보는 투철한 안목으로 수천 년에 걸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현대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박사와 제가 엮은 대담집에서 “우리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대의 모든 악에 패배주의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고 게다가 초연한 태도로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한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입정안국론> 근저에 맥동하는 민중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사상

### 비탄에 잠긴 민중을 구하기 위해 집필

지금 저는 토인비 박사와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잇달아 일어나는 재해를 보며 13세기 일본에서 니치렌대성인이 저술한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이 생각났습니다.

첫머리에 “근년부터 근일에 이르기까지 천변지요(天變地夭) 기근역려(飢饉疫癘)가 널리 천하에 충만하고 널리 지상에 만연하였도다.”(어서 17쪽)라고 씌어 있듯이, 당시는 해마다 재해가 일어나 많은 민중이 목숨을 잃는 비통하기 이를 데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성인이 비탄에 잠긴 민중을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가마쿠라 막부의

---

<sup>2</sup> 펠로폰네소스전쟁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난 전쟁을 가리킨다. 아테네가 중심인 ‘델로스동맹’과 스파르타가 중심인 ‘펠레폰네소스동맹’ 사이에서 패권을 다투었다. 이 전쟁은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지만, 전쟁의 피해가 커서 그리스 사회 전체가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다.



사실상 최고 권력자인 호조 도키요리에게 제출하신 글월이 <입정안국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라는 시대상과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이념에 비취 <입정안국론>에서 떠오르는 관점을 지금부터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국가는 민중의 행복과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상철학입니다.

<입정안국론>은 니치렌대성인불법의 근간을 이루고, 평생 동안 여러 차례 직접 서사(書寫)하실 정도로 가장 중시하신 어서인데, 현존하는 서사를 보면 한자를 쓰는 방법에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성인은 어서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를 나타내는 '국(国)'(왕의 영지를 의미하는 한자)이나 '국(國)'(무력으로 다스리는 곳을 의미하는 한자)이라는 한자 대신 '국(國)'이라는 한자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비율을 살펴보면 80퍼센트 가까이 차지합니다.

즉 '국가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할 개념은 권력자도, 군사력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곳에 사는 민중이다.'라는 사상을 명확히 밝힌 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성인은 다른 어서에서도 권력자에게 "만민(萬民)의 수족(手足)인데"(어서 171쪽)라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은 민중에게 봉사하고, 민중의 생활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철학을 응축했다고도 할 수 있는 '국(國)'이라는 한자를 사용한 문서를 통해 불법사상을 바탕으로 사회를 뒤덮은 혼미한 어둠을 걷어내는 길을 밝히고, 봉건시대 지도자에게 간언하는 일은 참으로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대성인은 "세간(世間)의 허물은 조금도 없으나"(어서 958쪽)라는 말씀대로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몇 번이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고 두 번이나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성인이 제기한 관점은 75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부르짖는 인간의 안전보장과 기본이념이 상통하며 더욱 빛을 발하는 듯합니다.

'인간의 안전보장위원회'도 보고서에서 유의점을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국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주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전에서 사람들의 안전 즉 '인간의 안전보장'으로 관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군비를 증강해도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지키도록 도와야 할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요.

재해는 사회가 맞닥뜨린 문제를 단층(斷層)처럼 뚜렷이 드러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에서도 고령자를 비롯해 여성이나 어린이 또 장애를 지니거나 경제 격차로 괴로워하는 사람 등, 사회에서 냉엄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통과 심정을 생각하면 정치적 대응이 너무 늦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괴로움을 나누는 마음’ ‘연대하는 마음’이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정신적 기반**

#### **세계시민이라는 자각과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관점**

둘째, “일신(一身)의 안도(安堵)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四表)의 정밀(靜謐)을 기도해야 하느니라.”(어서 32쪽)고 있듯이 “자신만의 행복과 안전도 없고, 다른 사람만의 불행이나 위험도 없다.”는 생명감각에 근거한 세계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상징하듯, 서로 점점 더 깊이 의존하는 세상이 되었기에 특정 지역에만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해도 이윽고 범세계적 위협으로 맹위를 떨칠 위험성이 큼니다.

또 현재 맞닥뜨린 위협의 영향이 비교적 작다고 해서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도 보고서에서 이러한 위협의 공간적, 시간적 연관성에 관해 “개인과 공동체에 일어나는 특이한 일련의 위협이 광범위한 국내의 안전보장과 국가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파괴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인간의 안전보장은 장래 발생할 위협을 예방하고 완화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대성인이 <입정안국론>에서 밝히신 ‘사표의 정밀’(사회 전체의 안온)이 찾아오지 않는 한, 참된 의미의 ‘일신의 안도’(개개인의 안심)를 얻지 못한다는 관점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불법의 연기사상(緣起思想)을 바탕으로 하는데, 제가 자주 언급한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나는 나와 나의 환경이다. 그리고 만일 이 환경을 구하지 않으면 나도 구할 수 없다.”고 한 명제와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르테가가 명제를 밝힌 뒤에 쓴 말은 “현상을 구하라”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의 의미를 찾아라”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재해가 일어나면 많은 나라가 진심 어린 지원과 격려의 목소리를 보내는데, 이런 ‘괴로움을 나누는 마음’ ‘연대하는 마음’이 재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밝게 하고 용기를 북돋는지 모릅니다.

“일체중생(一切衆生)이 이(異)의 고(苦)를 받음은 모두가 이는 니치렌 일인의 고가 되느니라.”(어서 758쪽) 하고 외친 대성인이 <입정안국론>에서 나타내려고 하신 점도 현실사회에서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가누며 사람들의 괴로움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행동하려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정안국에 나오는 ‘국’이나 ‘사표’의 의미도 대성인 어서에 자주 등장하는 ‘일염부제(一鬮浮提)’나 ‘진미래제(盡未來際)’라는 말처럼, 널리 ‘세계’를 포함하고, 아울러 먼 ‘미래’까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향성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비극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는 삶의 방식’이며 ‘미래 세대에게 나쁜 유산을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에는 ‘세계시민이라는 자각’이 후자에는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책임감’과 통하는 정신이 맥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지구에서 살며 후손에게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기에 상하로도 좌우로도 파급되는 생명의 연쇄작용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 탈출구가 없는 시대 상황을 부수는 힘은 가슴을 울리는 대화에

### 근심의 공유를 맹세의 공유로

셋째, 대화를 통해 '근심을 공유'하는 데서 '맹세를 공유'하는 쪽으로 승화하는 과정에서 넓혀지는 '임파워먼트(내발적 능력 개화)의 연쇄작용'이 사태를 타개하는 열쇠가 된다는 통찰입니다.

불교 경전 대부분이 대화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듯이, <입정안국론>도 권력자와 불법자(佛法者)라는 서로 다른 처지에 놓인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논의를 심화하는 형식입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들고 여행하는 나그네(권력자)가 주인(불법자)을 찾아와 천재지변이 잇달아 일어나는 세상을 탄식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단지 재난을 탄식하며 비통해하지만은 않습니다. 재난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멈추게 하고 싶다는 '근심'을 공유하고 있기에 그 점이 처지의 차이를 뛰어넘은 '대화의 실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주장을 진지하게 나누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하고 당혹스러워 하는 나그네에게 주인이 하나하나 의문을 풀어주며 논의를 심화하는 즉 정신과 정신이 서로 부딪히며 엮는 생명의 드라마가 전개된 다음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이해한 나그네가 "다만 나만이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타인의 잘못도 훈계하리라."(어서 33쪽)고 결심을 피력하는 형태로 즉 주인과 '맹세를 공유'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대화로 이끌어낸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불전(佛典)의 정수(精髓)인 '법화경'에서 설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끝까지 믿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인간에게는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엄을 스스로 빛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한 존엄의 빛이 고뇌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 일어선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식으로 소생에서 소생으로 이어지고 넓혀지는 가운데 이윽고 사회를 뒤덮는 훈미한 어둠을 걷어내는 힘이 된다는 확신입니다.

'인간의 안전보장위원회'도 보고서에서 이러한 사상과 상통하는 내용을 제기했습니다. 즉 "인간의 안전보장은 '인간이 본디 지닌 강함과 희망'에 근거해 이루어지기에 자신을 위해 또 자기 이외의 인간을 위해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은 '인간의 안전보장' 실현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므로 인간의 안전보장을 추진하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외면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는 점보다 그 사람들의 노력과 잠재능력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정안국론>을 집필한 시대는 “당세(當世)는 세상이 어지럽고 백성의 힘이 약하니라.”(어서 1595 쪽)는 글월처럼 잇달아 일어나는 재난 앞에서 많은 민중이 살아갈 기력을 잃기 시작하고, 게다가 현실의 과제에 도전하기를 피하거나 자기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일만 장려하는 사상이나 풍조가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성인은 체념이나 도피가 구제로 이어지는 것처럼 설하는 사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의 생명을 흐리게 하는 ‘일흉(一凶)’이고,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의 가능성을 믿고 힘을 솟아나게 하면서 탈출구가 없는 시대 상황을 부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살아 있는 한, 결코 단념하지 않는다

저는 이 점과 관련해 사사가 이반 일리치 씨가 아무리 절망의 어둠이 깊을지라도 “자신이 작은 촛불이 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외친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반 일리치와 나눈 대화》라는 책에서 이 신념을 언급하며 브라질 군부 정권의 비인도적 행위와 싸운 벵 에우데르 카마라 씨의 말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결코 단념하면 안 되네.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재 속 어딘가에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을 테니.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불어야 해...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불고... 또 불고... 불이 살아나는지 보는 거야. 불이 다시 살아날지 말지는 걱정할 것 없어. 그냥 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말은 훗날 브라질에서 가장 잔인한 고문자(拷問者)로 알려진 장군과 대화를 마친 카마라 씨가 일리치 씨 앞에 털썩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신념과 적대 상태에 놓인 인물과 대화가 결렬되고 나서, “그래도 나는 단념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불러일으킨 말인데, 제게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듯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지속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말로도 다가왔습니다.

적대자든 동료든 한사람 한사람의 혼에 잠든 ‘작은 불씨’를 부는 임파워먼트는 간디와 킹 박사가 펼친 인권투쟁을 비롯해 민중이 냉전을 종결로 이끈 동유럽혁명이나 최근 ‘아랍의 봄’이라고 일컫는 민주화 운동에서도 큰 물결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냉전시대부터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해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교류에 힘쓰고, 다양한 문명과 종교적 배경을 지닌 세계 사람들과 거듭 대화해 국경을 초월한 우정의 연대를 넓힌 이유도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평화로운 지구사회’를 만드는 기반은 어디까지나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변혁하는 데 있고, '서로 정신을 촉발하는 일대일 대화'로만 변혁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재해가 상징하는 '갑자기 덮치는 곤궁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가지 관점을 <입정안국론>에 일관하는 사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관점의 핵심인 임파워먼트는 재해지역을 재건하는 데 가장 어렵고도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는 '마음의 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인간의 안전보장은 '인간이 본디 지닌 강함과 희망'에 근거해 이루어진다는 이념을 언급했는데, 혼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이 아닌 데다 설령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희망의 빛으로 비출 때까지는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험한 산봉우리를 오르기 위한 자일(등산용 밧줄)이 되는 '마음의 연대'와 하켄(암벽에 박는 갈퀴형의 못)이 되는 '격려의 썰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첫머리에서 언급한 사상가 에머슨도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잃기 전에 아내와 동생들을 잇달아 잃는 비애를 맛보았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일들이 "인도하는 손길이라든지 수호신의 양상을 띤다."고 자신의 마음을 쓰고, 그 뒤로 자신이 살아가는 데 좋은 변화를 낳는 힘이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앞서 고향을 잃은 괴로움과 통하는 말로 인용한 작가 생텍쥐페리도 그 다음 문장에서 "인간은 미지의 일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미지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미지가 아니다." "희망은 한 걸음 내디디는 일이다. 그런 다음 또 한 걸음 내딛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 걸음을 반복해서 내디뎌야 한다....."라는 기백 넘치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갑자기 덮친 병으로 일을 그만둔 면역학자 다다 도미오 씨도 단테의 《신곡》을 따르기라도 하듯이 "지금 지옥과 같은 상태에 처했다면, 내 지옥편을 쓰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삶의 증거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집필을 재개해 삶의 보람을 되찾았습니다.

그렇게 비극에서 소생한 드라마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마음의 지주가 된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사람들의 모습을 조사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체험을 서로 공유한 경우 고난이나 상실(喪失)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기력’을 곧바로 불러일으키게는 못할지라도 이 나눔이 고뇌에 잠긴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자!’는 마음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가장 먼저 마음의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상대의 고통에 전율을 느끼며 조금이라도 고통을 나누고 싶다는 심정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격려를 해야 비로소 상대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작은 불씨를 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한 사람을 철저히 격려하며 ‘자타 함께 행복’을 목표로 한다

#### 불법의 지혜는 상대를 생각하는 자애의 결정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불타(佛陀)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말하고, 소단위 모임에서 말했다.” “모든 사람을 마주하는 일은 곧 한사람 한사람을 마주하는 일이다.”라고 썼듯이 석존이 설한 팔만법장이라는 방대한 가르침도 대부분 온갖 괴로움에 처한 한사람 한사람을 마주하는 가운데 설했습니다.

“벗이여”라고 부르며 어디까지나 상대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서고, 대화로 괴로움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며 본인이 깨닫도록 촉구하고, 생명에 새기도록 들려주었습니다.

불법의 지혜는 독화살의 비유<sup>3</sup>가 상징하듯 형이상학적 개념이나 철학적 논쟁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눈앞에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한 사람을 어떻게든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근원에 있기에 끝없이 솟아납니다.

니치렌대성인의 가르침에서도 제자들의 고난을 자신의 일처럼 탄식하며 껴안을 듯이 격려하고 시련에 지지 않는 인생을 걷기 바라는 ‘자애와 기원의 결정(結晶)’으로 나타난 한마디 한마디가 현대에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

#### <sup>3</sup> 독화살의 비유

석존이 관념적인 논의에 빠지는 제자를 훈계하기 위해 설한 비유다. “독화살을 맞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가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밝혀지기 전에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다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비유를 들어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는 현실적인 행동에 비로소 불교의 본의가 있다고 깨우쳤다.

SGI에서는 이런 불법정신으로 일어서고 192개국에서 '일대일의 대화'를 근본으로 격려의 네트워크를 넓히며 마음과 마음의 연대를 착실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재해와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회관에 받아들이는 일을 비롯해 구호품을 실어 나르고 나누어주며 재해지역 청소를 돕는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재해를 입었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하며 격려의 대화를 지속한 멤버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은 어디까지나 우리 SGI가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고, 함께 돕는 속에서 '자타 함께 행복'을 지향하는 일상적 활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와 비정부기구(NGO)의 연차협의회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분과회가 열렸듯이, 현실사회에서 일어나는 위협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종교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주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과회에서는 우리 SGI 대표가 동일본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파워먼트는 재해를 입은 사람도 직접 구호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그에 따라 인도적 원조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 고뇌를 서로 나누는 유대가 희망의 내일을 여는 원천

### 나는 자식과 손자들을 위해 걷는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 일찍이 킹 박사가 자신의 저서에서 버스 보이콧운동에 참가한 어느 나이 든 여성을 소개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인종차별이 횡행하는 버스에 승차하기를 거부하고, 열심히 걷는 나이 든 여성을 발견한 자동차 운전사가 걱정이 되어 차를 멈추고, "할머니, 어서 타세요. 걸을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손을 저으며 이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나는 나를 위해 걷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자식과 손자를 위해 걷고 있습니다."



설령 재해로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또 눈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려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가장 괴로워한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설합니다.

불전에는 "보탑즉일체중생"(어서 797쪽)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설하는 우주 규모의 장엄한 보탑은 모든 사람의 본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본유(本有)의 존엄에 눈뜬 사람은 "마음을 파괴할 수 없는데"(어서 65쪽)라고 있듯이, 어떤 위협이 덮치고 시련을 겪을지라도 결코 존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으로 일어난 한 사람이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과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재기를 결심하며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고, 그러한 네트워크가 한 사람 또 한 사람으로 확대되어 존엄한 생명의 보탑이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의 재건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고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 마타이 박사가 운동에 건 신념

최근에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재해로 현지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속에서 지역에 뿌리내린 '상부상조의 네트워크'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가한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많은 나라가 보낸 지원과 격려가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갑자기 덮치는 곤궁의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의 안전망을 견고히 하려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여주듯이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기풍을 평소부터 사회 전체로 널리 조성하며 상부상조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재해와 분야는 다르지만, 케냐를 비롯해 아프리카 각지에서 민중의 힘으로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넓히고, 지난해 작고한 왕가리 마타이 박사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박사는 나무심기운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몇 번이나 방해받아 모처럼 심은 나무가 해를 입었을 때도 '나무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곳곳이 산다. 비가 내리고 햇빛이 반짝이면 나무는 어느새 어린 잎과 새싹을 하늘을 향해 뻗는다.'며 불굴의 의지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으킨 운동을 되돌아보며 '민중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 땀을 흘린다.'는 점에 철저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힘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신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민중이 일으키는 연쇄적 임파워먼트가 어떠한 절망의 어둠도 몰아내고, 희망찬 미래의 아침 해를 떠오르게 하기 위한 핵심이 있지 않을까요.

### 시대변혁의 전망을 공유하고 지구적 과제에 도전하자!

이어서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 그리고 존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갖가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평화문화'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엘리스 볼딩 박사가 강조한 두 가지 관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미래의 전망을 공유한 다음에 행동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200년의 현재'라는 시간축에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박사는 처음 관점에 관해 이러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박사가 1960년대에 군축의 경제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회의에서, 만일 군축을 완전히 달성하면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할 일은 군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박사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운동에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평화나 군축이 필요하다고 해도 운동의 저류에 구체적인 전망이 맥동하지 않으면 냉엄한 현실의 벽을 부수는 힘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박사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명확한 전망이,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들을 결집하는 유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200년의 현재'라는 시간축과 책임감

또 다른 '200년의 현재'라는 관점은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이라는 범위를 자기 인생의 발판으로 포착하는 사고입니다.

박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현재라는 이 시점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자신을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바로 큰 타격을 입고 맙니다."

그러나 '200년의 현재'라는 더 거대한 시간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올해 태어난 갓난아이부터 올해로 백살 생일을 맞는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사는 시간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게 넓혀지므로, 자신은 그런 '더 큰 공동체'의 일부를 이루는 존재라는 세계관을 지니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씀은 위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아울러 새로운 세대가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도록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해야 하는 책임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딩 박사의 관점을 바탕으로 '인도' '인권'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인류가 공유해야 할 전망을 이렇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곳에서 일어난 비극이라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연대해 위협을 이겨내는 세계'

'민중의 임파워먼트를 기반으로 지구 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화적으로 살 권리 확보를 가장 우선시 하는 세계'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인류사의 나쁜 유산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지 않는 세계'

저는 지금까지 30회에 이르는 제언에서 이러한 전망을 항상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거듭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에 대처하는 데도 전망에서 역산해 생각하는 방법이 더욱 흥미해지는 현실사회의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아리아드네의 실'(길잡이)이 되고, 변혁의 물결을 일으키는 대안의 근원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응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재해' '환경과 개발' '핵무기 위협'이라는 세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춰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 UNHCR의 임무를 확대해 재해자를 지원

먼저 재해와 관련해 재해자를 지원하는 국제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유엔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를 중심으로 예방적 측면에서 재해에 따른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초래하고, 아울러 재해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점을 고려해 재해자를 지원할 때는 긴급히 인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덧붙여 “재해자는 ‘존엄 있는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인권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UNHCR이 지금까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한 ‘재해 피난민 구호활동’을 정식 임무에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UNHCR은 본디 임무인 난민보호와 더불어 국내피난민과 전쟁 이재민 구호 그리고 비호신청인이나 무국적자 보호 등으로 원조 대상과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UNHCR 규정에 “유엔총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활동에도 종사해야 한다.”(제9조)라고 있듯이 여러 차례 유엔총회 결의를 거치며 법적 근거를 부여했습니다.

세계에서는 해마다 약 1억 6,000만명이 재해를 입고, 10만명이나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재해 발생건수와 재해자 수도 1970년대와 비교해 약 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어 ‘재해와 빈곤의 악순환’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HCR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도 이러한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나 근래에 일어난 다른 재해에서 재해자의 인권에 새로운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듯이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명백히 인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지적처럼 재해 구호와 재건에서 재해자의 존엄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커다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재해 상황에서는 재해자의 건강상태나 생활상황 악화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기 쉬운데, 긴급상황일수록 오히려 그러한 권리 하나하나가 결여될 경우 재해자에게는 치명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 UNHCR이 항상 지원에 관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보한 다음,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인도주의'와 '인권문화'에 근거한 구호활동을 전개해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철저히 지키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인권을 지키는 국제협력을 강화하자

### 인권교육에 관한 유엔 선언을 채택

'인권문화' 건설은 재해를 비롯한 위협이나 사회적 폐해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는 데도 매우 긴급한 과제이기에, 지난해 12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교육이나 연수로 '인권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원칙과 달성목표를 제시한 역사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유엔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한 선언'은 2007년에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초안을 결정한 이래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인권교육학습 NGO작업부회'를 비롯해 여러 NGO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지원했습니다.

이 NGO작업부회 의장을 맡은 SGI에서는 현재, 선언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교육협회(HREA)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UN HCHR)와 협력해 인권교육을 위한 DVD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언을 바탕으로 한 이런 활동이 세계적으로 넓혀지면 재해가 일어난 나라의 정부나 자치단체도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구호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인권문화' 건설은 21세기 국제사회가 이루어야 할 중심 과제이고, SGI도 앞으로 시민사회 측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 재해 예방에서 재건까지 여성의 역할을 중시

다음은 재해 예방에서 구호와 재건에 이르기까지 재해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

시하도록 국제사회가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재해처럼 '갑자기 덮치는 곤궁의 위험'에 대처하려면 한사람 한사람이 처한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고, 아울러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사태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식이 사회에 뿌리내리려면 여성의 역할에 빛을 비추는 일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재해로 목숨을 더 많이 잃고, 대규모 재해일수록 격차가 커진다고 합니다.

또 일단 재해가 일어나면 여성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거나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권이나 존엄이 위태로워질 위험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이 본디 지닌 '재해 예방에 공헌하는 힘'이나 '재건에 공헌하는 힘'에 더욱 주목해 대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열린 세계재해경감대회에서 채택한 '효고행동계획'에서는 "모든 재해위험관리정책, 계획, 의사결정 과정에 젠더(Gender,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성)에 바탕을 둔 사고방식 도입이 필요"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점은 실시상황을 점검한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도 법적 효력을 지닌 원칙을 명확히 내세우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회가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에 여성이 평등하게 참가하고 완전하게 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1325호 결의(決議)<sup>4</sup>가 떠올랐습니다.

2000년 10월에 채택한 이 결의는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10여년을 거치며 결의 이행에 과제도 남아 있고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각지에서 추진할 때 1325호 결의를 지침으로서 항상 염두에 두게 된 의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채택에 힘쓴 안와를 초두리 전(前) 유엔사무차장은 저와 엮은 대담집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 <sup>4</sup> 1325호 결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000년 10월에 채택한 획기적인 결의다. 분쟁 방지와 해결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무력분쟁 아래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특별한 방책을 강구하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는 '전쟁범죄 책임자' 소추(訴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 ‘평화문화’는 여성이 관여함에 따라 더 강인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 “여성을 빼고 참된 의미의 ‘세계평화’는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재해 예방과 재건이라는 면에서도 여성이 맡아 완수할 수 있는 역할은 이와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가운데 각지에서 평화 유지활동을 전개한 유엔도 2010년 1월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중미 아이티의 상황을 토대로 1325호 결의 대상범위를 자연재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325호 결의가 대상으로 하는 평화구축의 개념을 확대해 재해 예방과 재건을 포함해 적용하든지 아니면 재해 예방과 재건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도록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효고행동계획’을 채택할 당시 개최국이자 한신·아와지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한 일본이 앞장서서 국내 환경을 조속히 정비해 각국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년 전에 창설한 유엔여성기구(UNWomen)의 미첼 바첼레트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가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족과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참으로 여성의 강함과 근면함 그리고 지혜는 인류가 아직 개발하지 않은 가장 큰 자원입니다. 이 가능성을 개척하는 데 앞으로 100년이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성을 언제까지나 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해 예방이나 재건을 할 경우에도 여성이 사태를 호전시키는 ‘변혁의 최대 주체’로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문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에 관해 의식계발을 추진한 SGI로서도 앞으로 재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필요한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의식계발을 민중 차원에서 넓힐 생각입니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류의 공동목표를 설정

### 6월 브라질에서 ‘리우+20’ 회의

재해에 이어 다음은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오는 6월에 브라질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회의(리우+20)가 열립니다. 1992년 세계정상회의를 연 지 20주년을 맞는 현재까지 거둔 성과를 재검토하는 자리며, 주요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라는 맥락에서 바라본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가운데 녹색경제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히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배분을 조정하는 개념으로 한정하는 일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델구축과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이 지난해 가을에 개최한 톤자 세계어린이청소년 환경회의에서는 녹색경제를 '사람들의 행복, 사회적 공정성, 환경보호를 동등한 비중으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지속가능하고 유일한 포괄적 체제'라고 자리매김하는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한 세계의 청년 대표들이 채택한 의욕적인 전망에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려면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목표<sup>5</sup>에 이어 새로운 공동목표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리우+20 회의를 향해 처음으로 의견을 정리한 문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류와 지구가 맞닥뜨린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바탕으로 빈곤 해소와 기아 인구 감소 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른바 태어난 나라와 자란 환경에 따라 수명과 존엄의 격차가 발생하는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개선하도록 정한 목표로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목표기간이 끝나는 2015년 이후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 <sup>5</sup> 밀레니엄 개발목표

유엔이 2000년 9월에 채택한 '유엔밀레니엄선언' 등을 토대로 정리한 국제목표를 일컫는다. 2015년까지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를 비롯해 초등교육 완전보급, 영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개선 등 8개 분야 21개 항목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저는 빈곤과 격차가 초래하는 지구사회의 모순이 개선되기 바라는 밀레니엄 개발목표 정신을 계승하며, 어느 나라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여러 문제의 대책을 시야에 넣은 '21세기 인류의 공동작업'으로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리우+20에서는 새로운 공동목표를 검토할 작업반을 편성해 회의 합의사항에 대화작업 개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주축이 되는 이념으로 지금까지 논한 '인간의 안전보장'에 덧붙여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념을 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속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지금까지 논한 문맥에 따라 표현하면 '누군가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고, '상처 입은 고향(지역)이나 지구를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을 옳지 않게 생각하는 정신'이고, '현재의 번영을 위해 미래를 발판으로 삼지 않고, 자식이나 손자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거듭하는 사회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의무감 같은 형태로 외부에서 구속하는 규칙도 아니고, 중압감을 수반하는 책임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학자 존 갤브레이스 박사가 저와 엮은 대담집에서 21세기가 지향해야 할 모습으로 제기한,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일이 즐겁다'고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이 모이고 서로 나누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목표에 관해 "목표달성은 물론 비극으로 괴로워하는 한사람 한사람이 얼굴에 웃음을 되찾는 일이 우선 과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주의를 촉구한 까닭도 박사와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윤리를 특별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미의 선주민 이로코이족이 "모든 일은 현대 세대뿐 아니라 땅 밑에서 아직 얼굴을 내밀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세대까지 고려해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승했듯이, 다양한 전통 문화와 종교가 살아 숨쉬는 생활의 실감 즉 현대인 대부분이 잃어버린 정신 속에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전(佛典)에도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멀리 사는 것도 가까이 사는 것도, 이미 태어난 것도 앞으로 태어나려고 하는 것도 살아 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여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의 기반이 될 윤리를 규정하는 데는 외재적 규범이 아니라 이러한 생명관에 뿌리내린

‘맹세’라는 성격을 띠도록 교육하고 의식을 계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빈곤과 격차의 문제를 비롯해 재해처럼 갑자기 덮치는 위협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아울러 생태계 파괴를 막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를 파고들어 고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지구 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 그리고 존엄을 미래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지키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세계의 영지를 모아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은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서둘러 정책을 검토해야

#### 방사능 오염에 따른 현재진행형의 위협

올해는 유엔이 정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해’인데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원자력 발전의 방향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는 미국 스리마일섬에서 일어난 사고(1979년)와 옛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사고(1986년)에 이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완전히 수습되기까지는 아직도 멀었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양과 폐기물을 어떻게 제거하고 저장해야 하느냐는 과제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재진행형의 위협’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원전에서 핵연료와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고 시설을 해체하기까지 길게는 40년이나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 데다, 주변 지역이나 오염이 심한 지역의 환경을 어떻게 되살리느냐는 과제를 비롯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나타나는 방사능의 영향을 포함해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장래 세대까지 짊어지게 하는 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부터 저는 원전에서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면 얼마나 큰 재해를 입을지 헤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리라는 면에서도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이상에 걸쳐 나쁜 유산을 남기게 되는 문제점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리 문제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원자력사고에는 국경이 없고, 사람의 건강과 환경을 직접 위협한다.”고 말한 다음 “국경을 초월해 영향을 미치므로 범세계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듯이 이제는 자국의 에너지 정책 범주 안에서만 논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지구 전체의 지진 가운데 약 10퍼센트가 발생하는 지대며, 몇 번이나 쓰나미 피해를 본 역사를 생각하더라도 심각한 원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과연 낙관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을 조속히 검토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앞장서서 도입하는 나라들과 협력해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한 공동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문제로 고민하는 개발도상국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을 혁신하는 일을 일본의 사명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에너지정책을 전환할 때는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금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이 있던 지역에 다른 산업기반을 육성하는 일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IAEA를 중심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

국제사회의 과제라는 면에서 봐도 원전은 여러 과제를 안고 있기에 각국이 협력해 대응을 도모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25주년을 맞은 지난해 4월에 현지를 방문하고 나서 바로 “앞으로 원자력의 안전문제에는 핵무기와 같은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기고해 국제사회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은 물론 개발과 실험에 따른 방사능오염도, 원전사고에 따른 오염도 사람에게 주는 피해는 다르지 않으므로 이제 더 사고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1954년 소련에서 세계 최초로 원전을 가동한 지 반세기가 넘었기에 수명이 다한 원자로가 많아

지는 한편 세계에서 가동하는 원전 수에 비례하듯 방사성폐기물의 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연구개발과 실용화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교환을 비롯해 군사적 전용(轉用)방지 등을 중심으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길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원전을 가동한 지 반세기가 넘은 현재 세계를 둘러싼 상황과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사고의 교훈을 토대로, 종래 IAEA의 임무에 덧붙여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일의 '최종 단계'를 직시한 국제협력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 IAEA를 설립한 이래 추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시 대응제도 확충'과 '원자로 폐기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해 검토해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IAEA를 중심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 **'원수폭금지선언' 발표 55주년 핵무기금지조약 체결을**

####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논리를 타파**

마지막으로 핵무기 금지와 폐절을 위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는 1950년대 이후에 핵보유국이 각지에서 핵실험을 반복한 데 따른 방사능오염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도다 제2대 회장이 발표한 지 올해로 55주년을 맞은 '원수폭금지선언'은 참으로 그러한 핵개발 경쟁이 격화된 당시 시대 정세를 바탕으로 명확히 내세운 선언이었습니다.

도다 회장은 선언에서 "지금 세계에서는 핵이나 원자폭탄 실험을 금지하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 핵무기 속에 숨은 발톱을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핵실험 금지는 물론 많은 민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립한 안전보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다 회장은 전부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전쟁의 희생이 되면 안 된다는 '지구민족주의'를 제창하고, 민중의 연대로 전쟁을 근절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길을 가로막는 마수가 바로 핵무기라고 직시한 도다 회장은 서거하기 약 반년 전인 1957년 9월에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해, 젊은 세대가 핵무기 금지와 폐절 운동을 계승해 앞장서서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선언을 발표하기 3년 전에 미국의 수폭실험으로 일어난 비키니환초사건<sup>6</sup>이 상징하듯이 핵무기는 공격에 사용하지 않아도 개발 단계에서 사람들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또 실험을 중지해도 전쟁방지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일은 '수많은 민중과 지구 생태계가 희생되는 일도 거리까지 않는다.'는 비인도적 사상을 토대로 세운 안전보장이라는 사실을 표면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즉 핵보유에는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점만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궁극적으로 드러낸 존재가 핵무기라고 해도 좋습니다.

불법에서는 전쟁 등을 일으키는 탐(貪), 진(瞋), 치(癡)라는 번뇌의 근원에 있는 생명상태를 '원품(元品)의 무명(無明)'이라고 설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일도 원품의 무명에서 생긴다고 통찰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근본적 충동을 물리치지 않으면, 설령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민중의 희생을 돌보지 않고 비참한 전쟁을 반복하는 토양이 언제까지나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핵무기를 '필요악'으로 용인하지 않고 '절대악'으로 금지하고, 폐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원수폭금지선언'에 일관된 가장 큰 문제제기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관점은 1996년에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위법성을 추궁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서도 무너뜨리지 못한 큰 벽이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핵무기 사용과 위협이 국제인도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도 '국가의 존립이 위협에 처해 정당방위하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위법인지 아닌지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

#### <sup>6</sup> 비키니환초사건

1954년 3월, 태평양 중서부에 있는 비키니환초에서 미국이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으로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일본 어선 '제5후쿠류마루'의 선원이 방사능에 노출된 사건을 일컫는다. 비키니환초에서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이 핵실험을 반복해 마셜제도의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방사능오염의 피해로 괴로워했다.

##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여러 동향

그러나 2010년에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이런 법적인 허점을 막고 핵무기 비합법화의 지평을 여는 데 합의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인도적 견지에서 괴멸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가맹국이 어떠한 때라도 국제인도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어느 나라든’ ‘어떤 경우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발표한 핵폐절 제언에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 가운데 한가지가 핵무기 비합법화를 요구하는 세계 민중의 의사를 결집해 ‘핵무기금지조약(NWC)’의 기초가 되는 국제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PT재검토회의에서 내린 합의는 그 돌파구가 될 것이며, 명확히 조약이라는 형태로 승화하는 도전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제규범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를 거쳐 확립된다고 합니다.

- ① 기존에 있던 규범이 한계를 드러내어 새롭게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② 그 주장을 받아들일도록 촉구하는 가운데, 동조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여론의 기세에 가속도가 붙으면 캐스케이드현상(찬동하는 나라가 가속적으로 확대)이 일어난다.
- ③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조약 등의 형태로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이러한 구도에서 비춰보면 현재 단계는 ②번의 전반에 해당하고 캐스케이드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한 까닭은 세계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1997년에 NWC의 초안을 작성해 2007년에 개정판을 내는 등 핵무기 금지에서 폐절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

둘째, 1996년 이후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NWC의 교섭 개시를 요구하는 결의를 유엔총회에

해마다 제출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을 포함한 130개국이 찬성하기에 이르러 지지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셋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NWC 또는 서로 보강하는 각각의 조약 체제로 핵군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2010년 NPT재검토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제안에 주목했다는 점.

넷째, 반기문 사무총장의 제안에 159개국이 가맹한 ‘국제의원연맹(IPU)’이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지지를 표명하고, 5100곳이 넘는 도시가 가맹한 세계 평화도시 시장(市長) 회의가 NWC 교섭을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각국의 총리와 대통령 경험자로 구성된 전직 국가수반회의(OB서밋)도 NWC 체결을 제창했다는 점.

다섯째, 2009년에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조건을 구축하기로 서약하는 1887호 결의를 채택한 점. 그리고 근래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악화로 핵보유국 사이에서도 군비 지출의 재검토를 외치고, 핵무기 관련 예산에 이르기까지 논의한다는 점.

## 청년의 정열과 신념을 주축으로 전 세계 민중의 뜻을 모아야

### 생명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이상으로 각각의 움직임 하나만 놓고 보면 현재 국면을 타개할 정도의 힘은 없을지 몰라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원위치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한걸음 한걸음 착실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조약의 초안을 만들고, 교섭을 촉구하는 활동과 서명을 다양한 형태로 펼친 것처럼 참으로 NWC 규범의 원천이 되는 정신은 민중 속에서 맥맥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사용한 비극을 두 번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인류와 핵무기는 공존할 수 없다’고 이미 민중 사이에 존재하고 숨쉬는 규범의식을 토대로 조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구체적으로 윤곽을 잡고 인류의 공통규범으로 명확히 내세우는 일을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NWC를 실현하는 캐스케이드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종래의 국제인도법의 정신에 덧붙여 '인권'과 '지속가능성'을 전 세계 민중의 의사를 모으기 위한 슬로건으로 내걸고, 청년들이 앞장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강력히 규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권'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핵무기가 계속 존재하고, 핵무기를 바탕으로 둔 안전보장 정책을 유지할 경우 같은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과 장래 세대에 초래할 피해와 부담이라는 문제가 부각되어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인권보장의 주축이 되는 조약 가운데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습니다. 1984년에 그 규약을 실시하는 일을 감시하는 규약인권위원회에서 일반적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라는 면에서 오늘날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협에 핵무기 설계, 실험, 제조, 보유, 배치가 들어간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존재 자체와 위협의 중대성에 따라 국가 간에 의심과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 점은 유엔헌장과 국제인권규약을 바탕으로 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데 적대하는 일이다.”

즉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상대를 강대한 군사력으로 위협하려는 충동이 계속 생기고, 그렇게 되면 많은 나라에 불안과 공포를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러한 위협의 악순환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와 군비 확장을 초래하고, 세계를 얼마나 불안정하게 만들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위협이 불안을 부르고, 그 불안이 군비확장을 초래해 위협이 더욱 증가하는 다시 말해 악순환만 낳는 핵무기와 군비확장 때문에 지출한 막대한 예산과 자원이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데 쓰였다면 세계에서 얼마나 빈곤을 극복하고 교육을 확충했을지 모릅니다.

전쟁 종결과 핵무기 폐절을 주장한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의 초안을 작성한 철학자 러셀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안전보장에 관한 이상한 개념과 왜곡된 윤리를 낳고 말았다. 무기를 보물처럼 보호하는 한편 아이들을 전쟁의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탄했듯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직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도적이고 냉혹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해야 할 필요성은, 제가 2년 전에 발표한 제언에서 유엔헌장 제26조의 정신을 실행하는 '인도적 활동의 성격을 띤 군축'을 주장하며 강조한 점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핵보유국은 국제적십자위원회 제이콥 켈렌버거 총재가 “핵무기의 특질은 파괴력에 있다. 즉 핵무기가 초래하는 필설로 다할 수 없는 피해와 그 영향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데다 확대된다. 또 환경과 장래 세대 그리고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라며 비인도성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이라는 면에서도 경고하고, 지난해 열린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赤新月運動) 대표자회의에서도 핵무기 폐절을 촉구하기로 결의한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2만발이나 넘는 핵무기가 존재하는데,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 자손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데도 오히려 몇십 배, 몇백 배가 넘는 무기를 계속 보유하면서까지 과연 무엇을 지키려는 것일까요.

설령 자국민 일부가 살아 남았다고 해도 그곳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 대표국과 NGO 중심으로 행동그룹을!

이처럼 국제인도법 정신에 덧붙여 같은 지구에서 사는 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인권’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운동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특히 핵보유국과 보유국의 ‘확장된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종래의 정책을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인권’과 ‘지속가능성’을 크게 침해한다고, 의식전환을 촉구하는 일로 이어지리라 기대됩니다.

그 점을 바탕으로 저는 NWC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조약과 의정서를 한데 묶어 핵무기 금지와 폐절을 추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 일은 인류의 공동사업이고, 국제인도법과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신에 비취 그 건설에 역행하거나 이념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기본조약의 주축으로 삼아 제조와 개발 그리고 사용과 위협을 철저히 금지하고, 폐기와 검증에 관한 합의는 각각 의정서를 체결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 핵심은 모든 나라가 안심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류의 공동사업’으로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매김해야 각 나라가 현재 지닌 견해의 차이를 초월해 조약을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공동목표에 비취, 서로 위협하거나 다투지 않고 위협을 없애려는 길을 열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 단계에서 기본구조를 '위협에서 안심으로 전환'하는 조약을 성립하면, 다음 단계인 의정서 발효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현재처럼 장래가 불투명하고 위협이 끝없이 확산되는 세계가 아니라 명확한 전체상(全體像)에 바탕을 둔 국제법을 따르는 모라토리엄(자발적 정지) 상황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조속히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올해나 내년에 대표국과 NGO가 중심이 되어 '핵무기 금지조약을 위한 행동그룹'(가칭)을 발족했으면 합니다. SGI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약의 원안과 의정서의 구성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청년들이 지닌 정열과 신념의 힘을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삼아 국제여론을 환기하고, 범세계적 민중의 연대를 강화해 찬동하는 나라가 확대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2015년까지 핵무기 금지와 폐절을 목표로 기본조약을 조인하거나 최종 원안(原案)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표하도록 제안합니다.

## 각국 정상은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방문하고 위협이 대치하는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

### 원폭이 투하된 곳에 서서 가슴속에 새긴 일

저는 전부터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201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시대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를 담아 '핵폐절서밋'을 열고, 각 나라의 정상과 시민사회 대표가 참가하기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NPT재검토회의를 여는 방식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PT재검토회의는 일반적으로 뉴욕과 제네바에서만 열기에 다른 곳으로 바꾸려면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제가 '핵폐절서밋'이든 NP T재검토회의든 원폭이 투하된 곳에서 열도록 간절히 바라는 까닭은 각 나라의 정상을 비롯해 회의 참가자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맹세를 새롭게 하는 일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역행하지 못하게 확고히 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헨리 키신저 박사와 함께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제언을 거듭한 윌리엄 페리 전(前) 미국방장관은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돔과 평화기념자료관을 자세히 둘러본 소감을 이렇게 썼습니다.

“눈앞에서 지옥처럼 펼쳐지는 원폭 투하 현장의 참상을 보며 가슴이 죄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때까지도 핵무기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핵무기가 실제로 초래하는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서 목격한 나는 새삼 핵폭탄이 지닌 강대한 힘을 실감하고, 핵무기가 당치도 않은 비극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강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아울러, 이러한 무기를 두 번 다시 지구 상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겼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엇인가 마음에 새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핵무기가 확산되고, 위협이 실제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타개하려면 같은 지구에 사는 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자녀와 손자 등 미래 세대와 깊이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SGI는 도다 제2대 회장이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한 지 50주년이 되는 2007년부터 '핵무기 폐절을 위한 민중행동 10년' 운동을 시작하고, 민중의 소리를 모으는 데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핵무기 폐절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220개가 넘는 도시에서 개최한 전시회는 그 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시민이 관람했습니다.

그 밖에 국제핵전쟁방지의사협회(IPPNW)가 추진하는 '핵무기폐절국제캠페인(ICAN)'에 협력하고, NWC의 실현을 촉구하는 민중의 연대를 넓히고, 아울러 핵무기에 관한 기사와 논고를 발신하는 프로젝트를 국제통신사 IPS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비롯해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승이 55년 전에 “적어도 내 제자라면 오늘 내가 발표하는 이 성명을 이어받아 전 세계에 이 뜻을 두루 알리기 바란다.”라고 남기신 유훈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스승과 나눈 맹세를 SGI 청년들과 함께 완수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길을 민중의 손으로 개척하겠다는 뜻을 공유하는 단체나 사람들과 손을 잡고, 전례가 없는 도전을 어떻게든 달성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창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역적으로 확보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핵지대 확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 평화와 인도(人道)의 세찬 흐름을 세대에서 세대로 더욱 힘차게!

### 구체적인 제안과 행동이 인류를 지키는 지붕

이상으로 재해를 비롯해 환경과 개발 문제 그리고 핵무기 문제에 관해 각각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어떤 문제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도 않을뿐더러 장애도 다르겠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한 사람 한사람의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에 '지구민족주의'를 제창하고, 55년 전에 '원수폭금지선언'을 발표한 스승 제2대 도다 회장의 신념은 "항상 100년 앞, 200년 앞을 내다보고 행동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도다 회장이 불이(不二)의 제자인 제게 미래를 맡기며 사자후(師子吼)하신 말씀은 평생 동안 맹세와 행동의 원점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그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앞장서서 '행동'하는 일이 중요하다."

"설령 당장은 실현하지 못해도 이윽고 그 제안이 '불씨'가 되어 평화의 불길이 번진다. 공리공론은 어디까지나 허무하지만, 구체적 제안은 실현의 '주축'이 되고, 인류를 지키는 '지붕'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어온 이 제언은 바로 제가 스승과 나눈 맹세를 이루려는 실천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구적 규모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거듭 제안하는 한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원동력인 전 세계 민중의 연대를 넓히기 위해 192개국 SGI 동지와 함께 날마다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나누는 데 힘썼습니다.

평화를 위한 싸움도, 인권과 인도를 위한 싸움도 어떤 산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끝이 보이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세대에서 새로운 다음 세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세찬 흐름을 만들고 또 그 흐름을

강하고 크게 만드는 도전에서 지구의 미래는 반석같이 된다고 확신하며 함께 지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신념을 불태우며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임파워먼트'를 힘차게 추진하며 평화롭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지구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양을 개척할 결심입니다.

### 참고문헌

1. 《천재(天災)와 국방(國防)》, 데라다 도라히코 저, 고단사
2. 《오늘날 안전보장의 과제》, 인간의 안전보장위원회, 아사히신문사
3. 《인간의 대지》, 《세계문학전집77》 수록, 생텍쥐페리 저, 호리구치 다이가쿠 옮김, 고단사
4. '평화의 철학과 시심(詩心)을 말한다', 《제삼문명》 2012년 2월호
5. 《초시장화(超市場化) 시대》, 스투어트 리스 저, 가와하라 기미오 번역감수, 법률문화사
6. 《과묵한 거인》, 다다 도미오 저, 슈에이사
7. 《시련에 처한 문명》, 아널드 토인비 저, 후카세 모토히로 옮김, 사회사상사
8. 《세계의 명저73 토인비》, 로쿠야마 마사미치 책임편집, 중앙공론사
9. 《21세기를 여는 대화》,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3권》 수록, 이케다 다이사쿠/아널드 토인비 저
10. 《돈키호테에 관한 사색》, 오르테가 이 가세트 저, 마타이스/사사키 다카시 옮김, 현대사조사
11. 《이반 일리치와 나눈 대화》, 이반 일리치/데이비드 케일리 저, 다카시마 가즈야 옮김,  
후지와라서점
12. 《에머슨 논문집(상)》, 에머슨 저, 사카모토 마사유키 옮김, 이와나미서점
13. 《재해 유토피아》, 레베카 솔닛 저, 다카쓰키 소노코 옮김, 아키서방
14. 《붓다와 용수》, 칼 야스퍼스 저, 미네시마 히데오 옮김, 이상사
15. 《자유를 향한 대행진》, 마틴 루터 킹 저, 유키야마 요시마사 옮김, 이와나미서점

16. 《검은 대륙의 초록 희망》, 왕가리 마타이 저, 후쿠오카 신이치 옮김, 기라쿠사
17. 《평화문화가 빛나는 세기를 향해!》,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114권》 수록
18. 《새로운 지구사회 창조를 위해》, 우시오출판사
19. 《위대한 인간주의 세기를》, 이케다 다이사쿠/존 갤브레이스 저, 우시오출판사
20. 《붓다의 말씀》, 나카무라 하지메 옮김, 이와나미서점
21.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프랑스판 2011년 4월 26일자
22. 《도다 조세이 전집 제4권》
23. 《이어북 ‘핵군축, 평화2011’》, NPO법인 피스데포 발행, 고부켄출판사
24. 《핵 비확산에서 핵 폐절로》, 우라타 겐지 편저, 헌법학사/일본평론사
25. 《핵 없는 세계를 바라며》, 윌리엄 페리 저, 스노하라 쓰요시 옮김, 닛케이신문출판사